제1강 회화와 사물 Ⅰ

(0625_01)

◎ 사물

▲ 회화의 존재론 : 예술 장르에 대한 철학적, 존재론적 접근의 시도

▲ 회화 철학에서의 사물의 중요성

- 회화와 철학의 싸움을 자극하는 '먹이'의 역할.
- 우리 자체가 사물, 우리의 정신에 넘쳐나는 관념들이 생겨난 원천들이 바로 사물이다.
- 모든 것은 사물의 변용

⇒ '회화의 존재론'을 논함에 앞서 사물들과의 일반적인 투쟁이 필요.

◎ **사물에 대한 철학자들의 관점**(현상학 이전)

- 사물에 대한 반성=철학의 발생 (∵만물의 아르케(arche), 스토이케이온(stoicheion)의 탐구에 있어 만물이 바로 사물의 총체를 일컬음)

▲ 엠페도클레스[1]의 사원소설

- 흙, 물, 공기, 불 등 네 가지 원소가 사물의 근본적인 모습들임.

▲ 데모크리토스[2]의 원자론

-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양과 모양에 있어서만 차이를 갖는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사물의 근본적인 모습임.

⇒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에서 사물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

⇒ 사물들과 사물들을 보고 인식하는 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뚜렷한 분석이 없다.

(0625_02)

▲ 플라톤

- 참다운 존재로서의 '이데아'와 그림자인 '사물'의 구분 : 동굴의 비유
- '가시적(可視的)'인 것과 '가지적(可知的)'인 것의 구분

: 가시적인 것) 감각할 수 있는 것의 총칭

: 가지적 이데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참다운 존재가 아니다.

⇒ 플라톤의 시인추방론(시인의 계열에 포함되는 화가의 추방에 대한 주장) - '화가의 작업은 진리로부터 3단계 떨어져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

---

1) 고대 그리스 시칠리아섬 출생. 다재다능한 기인으로 알려졌다. 두 편의 시 <정화(淨化)>와 <자연에 대하여>를 저술. 전자에서는 신령의 윤회를 논하고 후자에서는 우주의 구조를 논함. 세계는 사랑이 지배하는 시기, 투쟁의 힘이 증대하는 시기, 투쟁이 지배하는 시기, 사랑의 힘이 증대하는 시기의 4기가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2) 고대 그리스 최대의 자연철학자. 원자론을 확립. 인간의 정신은 가장 정묘한 원자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했다. 원자론을 중심으로 한 그의 학설은 유물론의 출발점이며, 그 후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에 의해 계승되어 후세 과학사상에 영향을 끼쳤다.

www.artnstudy.com

- 제1실체로서의 사물 : 참으로 진짜 존재하는 것.
- 심층과 표층의 구분 : 실체로서의 사물은 항상 숨겨져 있고, 실체가 우유(偶有)라 일컫는 감각적인 속성들을 통해 바깥으로 드러난다.
- 우리가 사물의 심층은 보고 만질 수 없다. (감각불능→감각은 사물의 심층과 거리가 먼 것)
⇒ 플라톤을 벗어나지 못함. 그러나 감각 활동과 감각을 무시하는 철학은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 메를로-퐁티를 중심으로 한 현상학의 등장

www.artnstudy.com